

종합

産銀行장 “금호 구조조정 원칙대로 추진”

재무적 투자자 신규 투자 가능성 낮아

민유성 산은금융지주회장이 겸 산업은행장은 22일 대구건설의 재무적 투자자(FI)들이 금호산업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구조조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호그룹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대안이 나올 때마다 우왕좌왕할 수 없고 현 시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바꾸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호산업 등의 정상화 문제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 마냥 기다리다 보면 기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더구나 재무적 투자자들이 내놓은 대안은 채권단의 합의 여부나 신규 자금 확보 여부 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무작정 믿고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

했다.

이는 현 시점에서는 대구건설 재무적 투자자들이 금호산업에 2조2천억 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해 경영권을 인수한 뒤 그룹이 정상화하면 주식을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방안인 데 대한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 회장은 “일단 우리가 재무적 투자자들에 제안한 대구건설 주식을 주당 1만8천 원에 인수해주는 방안이 대해 계속 논의해 합의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더불어 금호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의 구조조정도 원칙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대구건설을 인수하더라도 나중에 투자이익은 투자자들과 형성될 것 같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금호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나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기본적으로 채권단이나 대구건설 재무적 투자자들이 기업이 조기에 회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내놓으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산업은행도 이번에 재무적 투자자들이 내놓은 방안이 대해서도 응통성 있게 논의해 기업회생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전남도 축산농가 판로확보 시·군에 가축증개매센터

전남도는 축산농가 판로확보를 위해 도내 각 시군 축협에 가축증개매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축증개매센터는 가축시장에서 직접 경매로 이뤄지던 기존 거래와는 달리 거래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 축협에서 매매를 앞선하는 제도다.

이는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내 가축시장이 폐쇄됨에 따라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다. 기존 가격은 조합, 농가 대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격평가위원회에서 공동으로 결정해 적정 가격을 설정한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농가에서 가축 매매상과의 직접적인 문전 거래는 삼가고 축협의 증개매센터를 이용해 달라”며 “가축 매매 시 반드시 수송차량 등에 대해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 축 발생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도내 가축시장의 재개장 시기는 구제역의 추가 발생, 경기도 이외 지역으로의 확산 유무 등 제반 발생 상황들을 면밀히 분석한 후 결정할 계획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7월부터 경찰관 체력검정 팔굽혀펴기 등 점수 매겨

경찰청은 경찰관의 자율적인 체력 관리를 유도하고 현장에 강한 경찰상 구현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체력검정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경찰청인 치안감 이하 모든 경찰관이 검정 대상이지만, 계급이 경무관 이상이거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면 본인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종목은 천200m 오래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손으로 물건을 쥐는 힘) 등 4가지이다. 점수는 종목별로 1등급은 25점, 2등급은 20점, 3등급은 15점, 4등급은 10점으로 매겨지며, 성별 또는 연령별(5세 단위)로 횟수나 시간에 차이를 뒀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무도훈련 시간의 절반 이상을 체력 훈련에 할애해 평상시 튼튼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영산강 살리기’ 현장점검 회의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2일 오후 나주시 다시면 영산강 살리기 2공구 공사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나주=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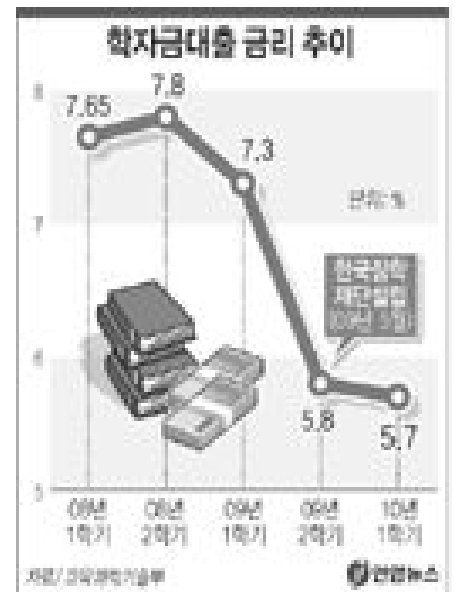
‘학자금 상환제’ 대출금리 5.7%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 1학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대출 금리를 5.7%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학기 5.8%에 비해 0.1% 포인트 내린 것으로 최근 국고채 금리가 지난 학기에 비해 다소 상승했으나 장학재단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국가지급보증, 채권발행비 최소화 등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신청 자격은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신청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는 15일부터 시작해 28일까지 대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재학생은 25일부터 3월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하려는 재학생은 3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 또는 장학재단 장학서비스센터(1666-51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6월 지방선거비용 제한액

광주시장 7억·전남지사 14억원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과 광주시교육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후보 당 7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장의 경우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6억2천100만 원에 비해 13% 늘

어난 것이다. 구청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동구 1억3천900만 원 ▲서구 1억8천600만 원 ▲남구 1억6천600만 원 ▲북구 2억3천400만 원 ▲광산구 1억9천9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동구와 서구는 9%가 증액됐으며, 남구는 11%, 북

구 13%, 광산구 16% 증가한 것이다.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1억2천500만 원으로,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동구가 4천500만 원, 서구 5천600만 원, 남구 5천100만 원, 북구 6천500만 원, 광산구 5천800만 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전남도지사 후보 선거비용제한액은 14억2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교육의원 선거와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 및 기초의원 거의 비용제한액은 관련 개정법률의 공포와 구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짐에 따라 결정·공고가 늦어질 전망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시설

‘부실 공청회’ 제도 개선 필요하다

대규모 사업이나 정책 결정을 앞두고 실시되는 공청회나 설명회, 공람 등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청회나 설명회 개최 시간이 쪼그라들고 있는데다 공람 역시 특정 장소에서만 가능해 주민들의 참여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지역 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열렸던 도시철도 2호선 노선 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에는 동원된 공무원들로 붐볐다. 지상고가 방식으로 건설되는 도시철도 2호선은 소음발생이나 도심경관 침해와 같은 민원 발생이 예상됐으나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로 대안 제시도 한 두건에 불과했다. 지난 지난 수년간 여러차례 열렸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관련한 시민공청회나 각종 도시계획 변경 관련 설명회 역시 주최 측과 시민단체 일부 회원들만이 자리를 지키기 일쑤였다.

이같은 부실한 주민의견 수렴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업이 착공된 뒤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모든 정책 및 사업 결정에서 주민참여는 필수조건이다.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은 사업이나 정책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민원 감소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정보 공개와 주민의견 수렴 시 우편이나 이메일을 활용하거나 설명회나 공청회를 야간에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 개선 못지 않게 주민들의 인식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설명회나 공청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 현안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되어야 한다.

도를 넘어선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예우

강진군이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퇴직공무원들에게 ‘포상금’ 명목으로 군 예산을 들여 1인당 순금 20돈짜리(시가 400만원 상당)의 금메달을 선물했다고 한다. 강진군은 지난해 9명의 퇴직자에게 모두 3천473만원에 달하는 ‘퇴직 금메달’을 전달했다. 지난 2008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5천250만원의 예산을 들였으며 2007년 4천800만원, 2006년 1천800만원 등 4년 동안 무려 1억4천378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퇴직공무원들에게 기념이 될 만한 선물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재정 상태가 극히 열악한 지자체에서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선물을 한다는 것은 ‘심심 행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강진군은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공무원들에게 보급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강

진군의 재정자립도는 8.6%로 전남도내 17개 군지역 가운데 최하위권(12번째)이다.

광양시도 20여년 전부터 공무원들의 정년이나 명예퇴직 시 순금 10돈짜리(200만원 상당) 금메달을 주고 있다. 시는 올해도 360만원을 책정해 퇴직자 2명에게 금메달을 선물할 예정이며 2008년에는 3명, 2007년에는 2명에게 금메달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경쟁 동안 공직에 근무하면서 주민들에게 봉사한 공로를 인정해 예우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비를 줄이는 등 경비 절감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설득력이 없다.

강진군이 이를 전 ‘금메달 수여’를 부러워라 철회한 것도 험세 낭비라는 비판 때문이다.

■ 지방선거 핫코너

주승용 의원 오늘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출판기념회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주승용 국회의원이 23일 오후 3시 순천시 팔마체육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주 의원은 ‘주승용의 남도사랑 답사기-아름다운 남도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책을 통해 지난해 7월 보성 태백산맥에서 출발해 8월까지 자신이 직접 돌아본 전남도 현장 답사기를 담았다. 주 의원은 전남 22개 시·군 145곳의 현장을 돌면서 남도를 체험하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나누는 대화를 기록했다. 저자는 1편에 다 쓰지 못한 이야기는 2편을 발간해 나눌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일형 도의원 출판기념회... 고흥군수 출마 선언

전남도의회 이일형 의원(고흥 1)은 22일 오후 3시 고흥종합문화회관에서 저서전 ‘고흥에서 우주를 품다’ 출판기념회를 하고 고흥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주승용 민주당 전남



도당 위원장, 이종헌 경제관광문화위원장, 김종철 전 의장 등 도의원과 김장환 전 교육감, 지역주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저서전 ‘고흥에서 우주를 품다’는 이 의원의 성장 과정과 인생역정, 그리고 고흥발전 위해 몸소 발로 뛰었던 15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 등을 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성호 도의회 교사위장 함평군수 출마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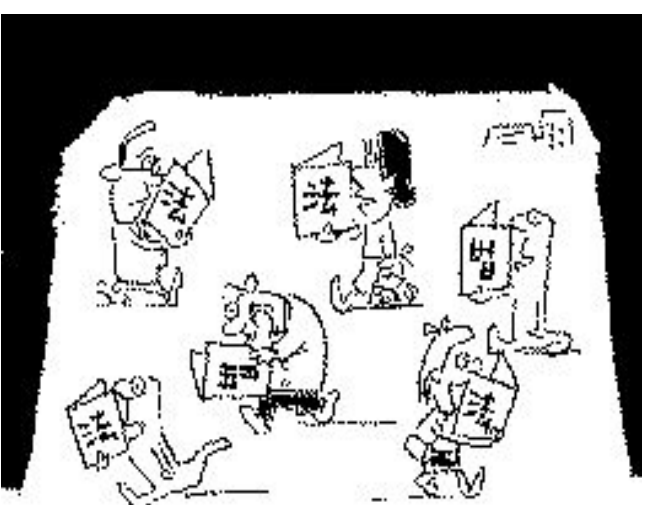
김성호 전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은 22일 함평엑스포 주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함평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함평의 새로운 역사 창조를 위해 농어민의 고소득 육성과 내비축재 발전을 강조하고 혁신적 지도력을 통한 군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종두



올해의 베스트셀러로 손색이...

올 공휴일 62일...향후 10년간 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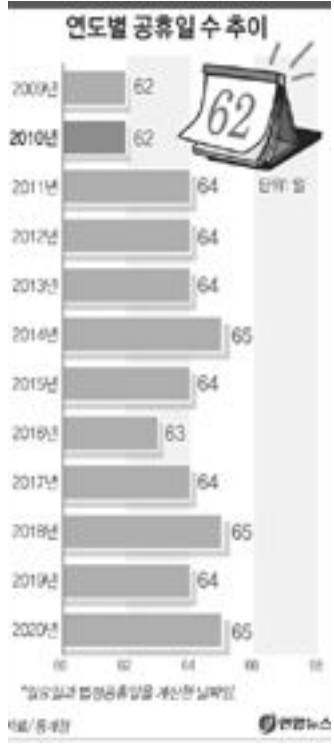
올해 실제로 될 수 있는 공휴일은 62일로 향후 10년 동안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 블로그에 따르면 올해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설·추석 연휴 포함)을 합한 뒤 겹치는 날을 빼면 총 62일이었다.

이는 설(2월14일)과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공휴일 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2020년까지 가장 공휴일인 적은 해가 64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동안 올해처럼 짧긴 날이 적은 날은 없다는 말이다.

통계상으로도 매년 평균 64일의 공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사실상 평년보다 공휴일이 이틀이나 줄어든 셈이다.

2000년부터 통계를 찾아봐도 공휴일이 62일 이하인 해는 2009년과 올해뿐이었다. 지난해 공휴일이 적다며 ‘최악의 해’라는 불평이 터져 나왔지만 사실은 올해까지 빨간 날이 가장 적은 해인 셈이다.

2000년에는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이 단 하루뿐이라 공휴일이 68일에 달했고 ▲2001년과 2002년 67일 ▲2003년 64일 ▲2004년 65일 ▲2005년 64일 ▲2006년 65일 ▲2007년 66일 ▲2008년 65일이었다. /연합뉴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0-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부 2200-660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다자언론 2200-536 (F A X 02-773-9331)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회1부 2200-612	체육팀 2200-691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 400원)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